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2019년 1월 ~ 2019년 12월)

[정정 및 반론보도]'삼화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파악 나선 화성시' 관련

본 신문은 지난 9월 26일자 10면에 "삼화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파악 나선 화성시"라는 제목으로 화성시 삼화제(삼화저수지, 황계길 131번길 62-29)에서 지난 23일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삼화저수지는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고기 폐사 원인이 군부대로 밝혀질 경우, 군부대를 관할하는 수원시에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황계길 131번길 62-29는 삼화제저수지가 아니라 화산농원 주소이며, 군부대 탄약고 및 생활관 등 일부 시설은 화성시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인천 빛낸 엔타스 면세점의 얼굴' 기사와 관련,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사진 삭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요청대로 고충 처리.

[바로잡습니다]'軍공항 막으려 혈세 쏟아붓는 화성시' 관련

경인일보는 6월 10일자 1면 '軍공항 막으려 혈세 쏟아붓는 화성시' 제목의 기사에서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는 람사르 습지 지정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화성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서 전문을 통해 인공습지도 람사르 지정이 가능함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사진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화환보다 화사하게 핀 대학교 마지막 추억' 사진기사와 관련,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사진 삭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요청대로 고충 처리.

[정정보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기금' 관련

경인일보는 2018년 11월 13일자 1면 '수공환경에너지센터 기금 전용 논란' 등 8개 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기금의 임의 사용을 위해 민간위원을 3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공의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지속위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이고, 지속위의 역할이 계획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위 도시계획분과에서 전문가 및 민간위원을 17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으며, 수공의 사단법인 출연금 역시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산 YMCA는 환경개선기금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